



명씨대중회, 시조 예릉 찾아 뿌리와 전통을 기리다 659년의 시간을 잇다... 명씨대중회, 시조 명옥진 황제 시제 봉행 2025년 3월 1일~7일 (6박 7일)

2025년 3월 1일, 우리의 시조이신 명옥진 황제 서거 659주기 시제를 봉행하기 위해 명제태 대중회장을 비롯한 참배단 35명이 중국 중경과 시조의 탄생지인 수현시 유림진을 방문하였다. 첫 일정으로 중경시 강북구에 위치한 대하국 궁궐터를 찾아 현지 관계자로부터 발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발굴은 약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 공사는 2026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중회는 3월 4일 저녁 중화명씨들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하여 한·중 명씨 종친들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명제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참배단을 위해 만찬을 준비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며, “한국 명씨들이 매년 시조께 참배할 수 있는 것은 중화명씨 여러분의 관심과 중경 강북구 관계 공무원들의 문화재 발굴·복원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명씨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만남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가 이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3월 5일 오전 9시 30분, 한국에서 준비한 예물과 현지에서 마련한 제물을 정성껏 정돈한 후, 시조이신 흙문소무황제께 올리는 시제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은 명제태 대중회장, 아헌관은 명기주 창원 종친회장과 명효남 상임이사가 맡았으며 종헌관은 명순식 자문위원장이 담당하였다. 집사는 명남식, 명현식, 명노주, 명종수 종친이 수고해 주었고, 축관은 명노석 부회장, 사회는 명영철 사무총장이 맡아 제례를 진행하였다. 종친들은 엄숙한 가운데 잔을 올리며 예를 표했고, 이어 중화명씨들도 각자의 방식에 따라 제례를 봉행하였다. 비록 절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조상을 향한 공경의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배를 마친 뒤, 한·중 명씨 종친들은 기념촬영을 하며 2026년의 재회를 약속했고, 대중회 일행은 고속열차를 이용해 시조의 탄생지인 수현시 유림진으로 이동하였다.

수현시 유림진 정부는 시조 명옥진 황제의 탄생지를 역사문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도착한 장소는 수현시와 유림진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조성된 “산월수인(山月隨人)”으로,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설이다. 버스에서 내리자, “조상의 뿌리를 찾아 예를 올리고, 친족 간의 정을 나눕니다. 명씨대종회 고향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현수막이 일행을 반겨주었다.

여장을 푼 후, 수현시에서 준비한 만찬장으로 향했다. 만찬에는 강신신 수현시장을 비롯해 유림진장, 산월수인 관계자, 수현시 및 유림진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옥진 황제의 탄생지를 중국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역사 문화 관광지로 본격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 명씨대종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명제태 대종회장은 수현시와 유림진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대종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 가능한 부분은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만찬 후에는 유림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명씨대종회와 유림진 간의 투자 의향서 체결식이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상호 교류를 약속하였다. 방문의 마지막 날, 일행은 유림진에 위치한 시조 명옥진 기념관을 찾아 시조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유림진 진장의 안내로, 시조께서 과거 군사들을 모아 주둔하며 훈련했던 장소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준비한 벚꽃축제 공연을 관람했다.

하산 도중에는 수현시 지방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며, 수현시 지역 언론에서도 한국 명씨대종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시제 봉행과 교류 방문은 조상을 기리고 가문의 뿌리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벚꽃처럼 피어난 교류의 인연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명씨 가문을 하나로 이어주었다.

앞으로도 명씨대종회는 전통을 지키며, 세계 속의 명씨 가문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곧,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리라 믿는다.

〈명씨대종보 편집국〉

※ 이 기사는 명씨대종회의 2025년 중국중경·수현 방문 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제례 후 기념 촬영



251년 된 족보 디지털로 되살아나다

명씨대중회, 병신보(1776년) 전자책 화(E-book)에 협조한 헌식 종친에 감사의 뜻 전해

명씨 대중회는 최근 약 250년의 역사를 간직한 족보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공식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작업은 헌식 종친의 귀한 협조로 이뤄졌다. 개인 소장 중이던 이 古文獻(고문헌)을 대중회에 대여함으로써 명씨 가문의 귀중한 족보가 종중 전체의 자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족보는 오랜 세월 동안 개인이 보관해 온 문서로,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이번 디지털 전환을 통해 명씨 종친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공의 기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전자책으로 구현된 자료는 훼손의 우려 없이 영구 보존이 가능해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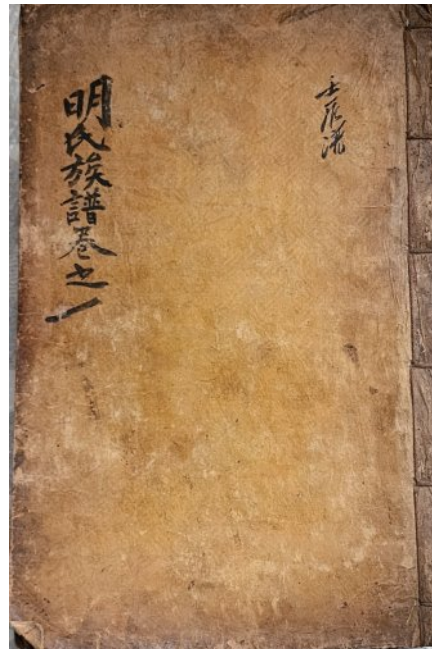
명노석 부회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귀중한 족보라도 개인의 서가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가치가 널리 전해지기 어렵다”며 “헌식 종친께서 보여주신 결단은 명씨 가문의 흐트러졌던 역사 자료를 다시 이어주는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고 평가했다.

명제대 대중회장 또한 “이번 족보 대여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를 되살리는 귀한 결정이었다”며 “이처럼 귀중한 자료들이 개인의 손안에서 머무르기보다, 모두와 공유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종친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각 가정에 잠들어 있는 족보, 편지, 서책, 사진 등의 자료는 우리 명씨의 정신과 전통을 살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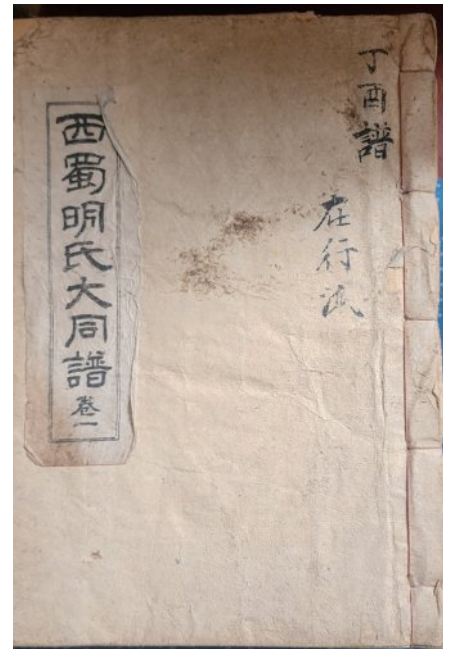
대중회는 앞으로도 명씨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종친들이 자료를 기증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동참하면, 해당 자료는 안전하게 보존되고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로 재구성될 수 있다. 대중회는 이를 통해 명씨 가문의 기록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개인의 헌신이 공동체의 역사 보존으로 이어지는 귀한 예라 할 수 있다. 대중회는 “헌식 종친의 깊은 뜻과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종중 모두가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는 문화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고문서 정보 문의 : ☎ 명영철 사무총장 010-8551-6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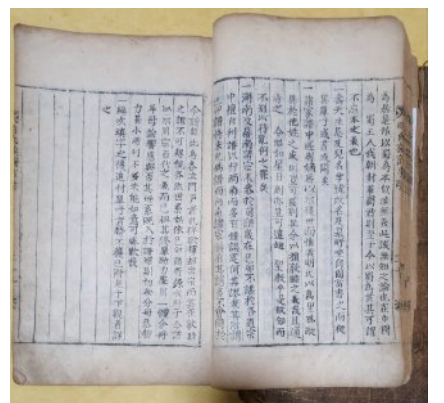
▲ 1892년 임진보 한 질(7책)



▲ 1957년 정유보 한 질(6책)



▲ 1776년 병신보 한 질(2책)



대하국(명하)은 왜 “황제국”이고 우리는 명옥진시조님을 왕이 아니라 왜 “황제”라고 호칭하는가?



홍콩 MDM & 중국 BRIGHT CELESTAR 대표이사 명 경 식

필자가 어린시절 선친과 주변 친척들로부터 우리 조상님은 중국의 황제였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당시만해도 열 몇살의 아이가 황제가 도대체 뭔지 잘 인식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스무살인 대학생시절 네 권의 족보책이 책장에 꽂혀있던 걸 보고 며칠동안 밤을 새며 읽어 보았던 기억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려운 한자(漢字)는 옥편을 찾아가며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명옥진조상님이 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여러 제후국을 둔 황제였다는 기록은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과연 어떤 제후국을 두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명씨가 희성이라 주변에서는 친척을 제외하고는 잘 만나기도 어려웠고 티비에서 작고하신 가수 명국환님이나 명현숙씨가 나오면 무척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1989년 대학생시절 한중수교전에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주변 친척분들은 필자에게 명씨중에서 아마도 조상님의 땅을 해방이후 최초로 방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반갑게 환송도 해주었습니다. 1995년부터 한국기업의 홍콩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많은 지역을 출장다니면서 간혹 명씨 성을 가진 중국사람을 만나면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같은 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저 반가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필자가 명씨대중회의 행사에도 참석하게 되고 명제태회장님이 필자를 대중회 상임이사 임원으로 위촉을 해주시어 여러 종친님들이 아시다시피 카톡의 대중회 단톡방에 여러 글을 올리는 영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조상님에 대한 역사자료를 공부하고 중국에서 조상님과 대하국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명옥진조상님이 진정한 황제이셨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표제건과 관련하여 하기 내용은 제도권의 역사평가라기보다 명옥진황제님 후손으로서의 필자 개인적 소견임을 밝힙니다.

중국내 제도권에 있는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본인들의 논문에 “명씨 대하정권”이란 표현을 합니다. 이 점에 몇몇 학자들은 역사패러다임의 현실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아울러 하기 논문의 저자인 유홍량박사는 명옥진황제님 후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명도 했습니다. 즉, 대하국과 명옥진황제님이 중국내의 제도권역사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 노력해서 명옥진황제님이 건국한 대하국이 황제국으로써의 존재를 중국의 제도권 역사속에 언젠가는 확실히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도 이곳 중국과 홍콩지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진해 보려고 합니다,

명옥진황제님과 관련된 역사지리학적 논문을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명옥진황제님의 대하국은 소수민족이 많은 사천, 호북, 호남, 운남, 귀주 등 지역에 토가족(土家族)이 기존부터 거주하던 토사성(土司城)이라는 자체적인 행정단위를 더욱 발전시켜자치권을 부여하여 황제국의 개념인 “제후국에 왕을 두고 다스린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의 간청에 따라 황제국으로 선포하신 것으로 필자는 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족보에는 임인년(壬寅年)인 1362년 봄에 대하국을 건국하고 황제라 칭했다고 나오며 1982년 중국 중경시 예릉에서 발굴된 현궁지비에는 1363년 정월 초하루에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옥진황제님이 신봉했던 명교(明教)의 종교의식으로 1362년 음력11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1363년 계묘년 정월 초하루에 정식적인 황제등

극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명옥진황제님이 건립한 대하국은 원말의 역사적 사건에 영향력이 비교적 큰 황제국이었습니다. 천통(명옥진황제님의 연호) 연간에는 남쪽 정복과 북벌을 통해 강토가 확장되었고, 개희(명승황제님 연호)연간에는 강역이 내우외환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대하국의 경계는 대체로 사천서부의 공래산, 소상령 동쪽의 사천, 중경 등 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부는 감숙성 농남, 섬서성 한중 지역까지 이르고 있고, 호북성 서부와 호남성 서쪽지역은 그 동부 경계이며, 남쪽은 이미 귀주성 귀양 이남 지역에 도달했고, 심지어 운남성 곤명과 그 인근 지역을 잠시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원나라의 사천성에 비해, 대하국의 영토는 서부와 남부에서 어느 정도 확장되어 명나라의 사천성포정사(지방행정기구)분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하국 강역안에 존재했던 은시토사성은 실제 “토사왕”이 존재했고 지금도 그 흔적과 역사적 자료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즉, 토사성은 토가족을 대표하는 왕족의 왕궁과 같은 개념입니다. 아래사진은 대하국의 강역이었던 현 호북성 은시(恩施)의 토사성의 입구이며 대하국을 연구하는 학자인 악원진(岳遠振)이 작성한 1365년 기준 대하국(명하)행정강역전도, 즉 대하국의 영토지도입니다. 지도의 여러지역에 기재된 선위사(宣慰司), 선무사(宣撫司=宣抚司)가 토사성을 의미합니다. 선위사가 선무사보다 더 큰 토사성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사진- 호북성 은시 토사성 입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명씨대종회 산악회, 망향대에서 시산제 봉행

2025.03.15(토) 망향대 | 장소: 교동도 망향대

명씨대종회 부회장 명영식



2025년 3월 15일, 명씨대종회 산악회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망향대에서 뜻깊은 시산제를 봉행하였다. 이 행사는 산악회의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시작점이자, 명씨 종친들이 함께 모여 조상의 은덕을 되새기고 혈연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다.

망향대는 명씨 가문에게 깊은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평향후님이 모셔진 숙릉과 2세조 명승황제 님의릉과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망원경 너머 각산 뒤편에 그 영지가 아련히 보이기도 한다. 조상을 향한 그리움과 뿌리에 대한 사색이 자연스레 스며드는 장소다.

특히 이번 시산제는 지난 2월 중국 충칭에서 봉행된 명옥진황제 659주기 시제의 여운을 이어받은 의미 깊은 자리로, 산악회 활동뿐 아니라 명씨 대종회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신을 함께 새기는 시간이었다.

행사에는 여러 종친의 따뜻한 마음이 정성스럽게 모였다. 명효남 종친께서는 직접 떡을 마련해오셨고, 명영수 종친께서 50만 원, 명성순 종친(명가순대)께서 30만 원을 찬조해 주셨으며, 이외에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마음이 더해져 총 142만 원의 찬조금이 모였다. 이는 금전적 후원을 넘어, 종친 간의 믿음과 애정을 보여주는 따뜻한 증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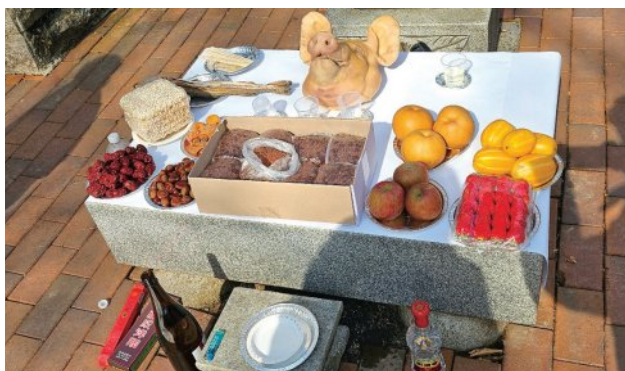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숙릉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정성껏 제물을 차리고, 산신께는 한 해의 무사 안녕을, 조상께는 명씨 가문의 번영과 산악회의 결속을 기원했다. 바람에 실린 절절한 마음은 망향대 너머 영지까지 고요히 전해졌을 것이다. 차분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제례는 참석자들 모두에게 진한 울림을 남겼다.

제례를 마친 후에는 강화군 대룡시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다. 이번 식사는 명노호 이사님께서 식사 비용을 흔쾌히 찬조해 주셨고, 둘러앉은 상 위에서는 음식보다 더 따뜻한 웃음과 대화가 오갔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종친들은 근황을 나누고 건강을 기원하며 깊은 친목을 다졌다.

식사 후에는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 한 잔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마무리를 지었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산행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랠고,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귀가했다.

이번 시산제는 산악회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자리였다. 조상과 후손을 잇는 시간의 맥을 되새기고, 종친 간 인연과 연대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하루였다.

명씨대종회 산악회는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걷는 길을 이어갈 것이다. 그 발걸음마다 조상의 숨결이 깃들고, 종친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장소-대전 뿌리 공원에서

2025년 4월 26일(토) 오전 11시, 족보 설명회도 시행 예정



명씨의 이름으로 이어온 전통과 화합의 장, 제47차 명씨대종회 정기총회가 오는 **2025년 4월 26일(토) 오전 11시, 대전 뿌리 공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정기총회는 매년 종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전하고 가문의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시간이다. 올해는 족보 증수에 관한 논의가 예정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족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문 안에 바르게 새기고, 가정의 흐름과 정신을 후손에게 전하는 중요한 일이다. 종친들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가 그 의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25 명씨대종회 총회 개최-대전 뿌리 공원에서

이번 총회는 기존 파주 사당이 아닌 대전 뿌리공원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뿌리공원은 성씨별 유래와 뿌리를 기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명씨 종친들이 이곳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강한 정체성과 상징성을 지닌다. 장소 변경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심지인 대전을 택했다.

명씨대종회 임원진은 “정기총회는 조상을 기리고, 서로의 존재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많은 종친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명씨 전자 족보 제3차 설명회 개최

일시: 2025. 4. 26. (토)

장소: 대전 뿌리 공원 대강당

명씨대종회는 오는 2025년 4월 26일(토), 대전 뿌리 공원 대강당에서 제3차 전자 족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47차 정기총회 일정과 함께 진행되며, 종친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족보 전문 기업인 뿌리 미디어가 주관하며, 족보 편찬위원회 소개와 함께 인터넷 족보 시스템의 접수 절차, 기능, 활용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뿌리 미디어 한상익 대표는 “디지털 족보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후손들에게 가문의 가치를 더욱 쉽게 전할 수 있는 도구”라며, “명씨 가문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 족보는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설명회를 통해 종친들은 더 쉽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씨대종회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도입하며 가문 문화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 족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친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태흥산업기전(주)

태흥기전: 명영준(25세손)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전문 제작업체

30여년간 전통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taeheungsanup.co.kr

고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저압배전반

분전반반

수, 배전반

Moter제어반

중앙감시제어반

계장제어반

분전반

충전기

집합 계량기함

명씨대중회 족보 편찬 참여 안내

뿌리를 잇고, 후손에게 전통을 전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족보 등재 신청 접수

효와 뿌리 교육, 인성교육의 실천

명씨대중회는 서촉(연안) 명씨 족보 편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족보는 국한문 혼용 번역 족보 + 인터넷 족보로 제작됩니다.

★ 등재 신청 접수 안내

접수 마감: 2025년 6월 30일

대상: 국내외 서촉(연안) 명씨 후손

접수: 명씨대중회 족보 편찬위원회 / 각 지역 종친회

연락처: ☎ 명영식 위원 010-6233-8204

☎ 명영철 간사 010-8551-6936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73번 길 77

홈페이지: www.명씨대중회

팩스: 031-527-3128 / 카카오톡 및 문자 접수 가능

★ 등재 비용

1인당: 20,000원 (기혼·미혼 동일)

사망자 등재: 20,000원 + 사진 1컷당 10,000원

인터넷 사진 등재: 10,000원

족보 예약금: 1질 50,000원 (판매가는 추후 안내)

입금 계좌: 국민은행 392801-04-176571 (예금주: 명씨대중회)

족보는 우리 가문의 역사이자 후손에게 전할 귀한 유산입니다.

가정마다 한 질 이상 꼭 소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족보 편찬 위원회 -

2025년도
임원
연회비
납부현황

명제태 대총회장	300만원	명영식 부회장	100만원
명노석 부회장	100만원	명기주 부회장	100만원
명병산 부회장	100만원	명헌식 부회장	100만원
명화진 상임이사	50만원	명형철 상임이사	50만원
명남식 상임이사	50만원	명노현 상임이사	50만원
명규정 상임이사	50만원	명효남 상임이사	50만원

명씨대중회 2월 임원회의

일시: 2025. 2. 21. (금) 15:00

장소: 방앗간 정육식당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참석인원: 17명

■ 회의 안건

1. 명옥진 황제 서거 제659주기 시제 참배 및 탄생지 방문

일시: 2025년 3월1일~3월7일

참석 인원: 35명 (1명 현지 합류)

2. 제47차 정기총회 개최

일시: 2025년 4월 26일

장소: 대전 뿌리 공원 대강당

점심식사: 도사락 준비(약 500인분)

3. 족보 편찬 위원 인사 및 위원장 선출

편찬위원: 명순식, 명영식, 명순구, 명노석, 명기주, 명헌식

간사: 명영철

족보 편찬 위원회 관리 규정 확정



상임위원 위촉(신규): 명효남



www.sk-motor.co.kr

연구하는 기업 (주) 신강전기

1991년 설립된 (주)신강전기는 산업용 모터생산 전문 메이커로 창업되었으며 고객 맞춤형 및 특수모터 제조를 바탕으로 안정된 품질과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신강전기: 명제문(24세손)

생산품목



철도차량용 냉난방 에어컨용
방직기용, 공조기용, 팬 브로워용
공작기계용 펌프용 감속기용
엘리베이터용 호이스트용
주차설비용 기타 산업기계용

KS표준품, 수출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48번길,27 (인천서부산단지 14블록 4롯데) Tel. 032)561-8000 Fax. 032)561-8309 E-mail. sk8308@chol.com

종친 애,경사 및 동향

개업 2025.02.24 명홍성님 서울식당 개업(주소: 나로도항길 94-8)
2025.02.28 명동성님 법무법인 엠케이 파트너스 오픈

결혼 2025.03.16 명노주님의 딸 명나희 결혼

장례 2025.03.16 명석병님 소천

明氏大宗會

명씨대중보 문의 및 구독신청

- ▶ 명씨대중보 발행인
명제태 회장 010-2399-6233
이메일 jayatool521@naver.com
- ▶ 명씨대중보 편집국장
명영식 부회장 010-6233-8204
이메일 mys3540@hanmail.net
- ▶ 명씨대중보 편집인
명영철 사무국장 010-8551-6936
이메일 my1857@naver.com

명씨대중회 종친 회비 및 후원계좌 안내

명씨대중회 발전을 위해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후원 계좌입니다
국민 392801-04-176571
명씨대중회

본 면은 광고란입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명씨대중보 기사투고 및 광고안내

- ▶ 명씨대중보는 3개월에 1번씩, 연간 4회 발행되는 우리 명씨의 신문입니다.
기사 및 사진 투고는 연중무휴 가능하오니, 종친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JAYA®

40년 전통 국내 전통 및 안전 공구 브랜드 한국 본사공식 자아 브랜드샵

@JAYATOOL

NAVER

(주)자아

blog.naver.com/jayatools

■ (주)자아 명제태(21세손)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73번길 77
TEL: 031)527-3126 FAX: 031)527-3128
홈페이지 : www.jayatool.co.kr

since 1980
JAYA

자아의 전 제품은 동급최강 가성비 가심비,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작되는 순수 국내 브랜드입니다

자아리튬충전 체인톱 JCS-1200



리튬이온 충전드라이버 JUD-480S



리튬충전 해머드릴 JPD-126



충전 해머드릴 JPD-185HL



NEW

자아 리튬이온 충전 농약 분무기 JSC-200



전지가위 JPS-300



전지가위 JPS-250



리튬이온 충전인두기 ZD-50RC 납땜 공구 용접



4계절

2in1 멀티모드 송풍기 / 흡입기

리튬이온 충전 송풍기 JPB-250



보령건강원

■ 보령건강원: 명남식(22세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건강원제품]



배즙



비트즙



양파즙



홍삼



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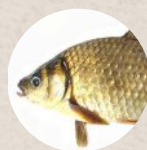
대추



장어



흑염소



붕어



가물치



전국 택배 가능



01
재료 선별 및
생산

02
검수 및 포장

03
출고 후 배송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8(우리은행 앞)
Tel. 031)461-1939 H.P 010-3778-0247